



TRADITIONELLES  
TAEKWONDO  
TAIJIQUAN  
QIGONG  
REIKI

하노버의 무도술레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벤 앙어스바흐 Sven Angersbach 라고 합니다. (태권도 공인 7단)

저는 35년 전 유도를 시작으로 무예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후 태권도를 접하게 되었고, 이 태권무예는 지금까지의 제 삶에 깊이 자리해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도술레의 모든 수업은 한국의 오랜 격투무술의 전통을 계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1980년 부터 2010년 까지 대사범 이범이 9단 태권명인에게 태권무술의 모든 강하고 수려한 훈련 영역을 전수 받았습니다. 이 태권무예는 또한 한국인의 생활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범이 9단은 1966년 독일에 태권도를 전수하기 위해 이 곳 하노버에 온 최초의 한국인 입니다. 저의 7단 승단은 이범이 9단계서 직접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은 제 삶 깊이 새겨져 있으며 이에 언제나 가슴 깊이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저희 무도술레는 생활예절로서의 종합무예 위에 서 있습니다. 무도의 '무'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 공- 비어있음' 을 뜻하고 무도의 '도'는 말 그대로 '길'이며 이는 또한 '목표'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이 '무도'의 개념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 '무극'과 '태극'인데, '무극'은 무한함을, '태극'은 '처음과 나중이 없는 무한성'을 뜻합니다. 태극은 곧 무극과 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의 길은 다른 모든 예술적 경지, 즉 자연치유, 음악, 시 문학, 서예 등 각각의 올림을 가진 모든 분야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의 근간 위에 저는 태극권, 기공, 단학-요가 등을 두루 학습, 연마하였고 이를 또한 저의 무예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격투 무예는 자연치유법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저는 중국 전통의학(TCM), 기공치유, 침술, 주사요법 등을 Amara 술레에서 '자연치유학'과 '치유실습'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하노버 리스트의 자연치유 프락시스에서 '스벤 앙어스바흐 하일프랙티커', 또한 '중국 전통의학 (TCM) 치유사', '수공치유/에너지-기 치유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프락시스는 하노버 리스트의 Dr. phil. Georg Klaus / Anne Witt 자연치유 프락시스와 공동으로 깊은 유대 속에 협업하고 있습니다. '무예'와 '치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무도술레에 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연락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스벤 앙어스바흐